



광동제약, 제주삼다수와 희망&나눔 집수리 봉사

광동제약은 희망의 리브하우스와 제주도 제주시 소재 가정 을 찾아 '제주삼다수와 함께 하는 제주 희망&나눔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원봉사자들은 천장과 지붕을 보수하고, 누수로 훼손된 거실과 방의 도배, 장판, 타일 등을 새로 시공했다. 특히 전기 설비와 주방 시설을 확보해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광동제약



대·중기협력재단, '청렴버킷챌린지' 시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임직원들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19일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버킷챌린지'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렴버킷챌린지'는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내 캠페인으로 매월 1인이 청렴 관련 기사나 생각 등을 공유하는 릴레이 형식의 활동으로 운영한다. /대·중기협력재단

SK브로드밴드

**미디어창작콘테스트 시상식
코로나 극복 '더 체인' 대상**

SK브로드밴드가 제2회 미디어창작콘테스트 '우리동네 텔레비-전(展)' 시상식을 16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및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음악 밴드 멤버들이 코로나19로 당면한 위기를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더 체인'이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에는 '나의 제로웨이스트 가게 탐방기:우리 동네 가게엔 쓰레기가 없다', '나는 연탄빵입니다', '그대를 다시 봄'이 이름을 올렸다.

/김순복 기자 sunbok@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상해 유아용품박람회 참가

일동홀딩스 계열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2021 상해 유아용품 박람회(CBME)에 참가해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행사에 현지 인력이 참가해 홍보 부스를 열고, '아이비엘(IBL) 시리즈', '락엔텍 시리즈'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동바이오

**송영준 인천대 교수 연구팀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선정**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는 송영준 생명공학부 나노바이오전공 교수 연구팀이 DNA 중앙연산처리장치(DNA CPU)칩 개발을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사업인 기초연구실 지원사업(Basic Research Laboratory, BRL)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DNA CPU 칩 개발을 개발해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한 중앙연산처리장치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ihj@

코로나發 인터넷 쇼핑 환경 변화



**이상현의
창업 칼럼**

인터넷은 산업혁명 이후 수백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대량생산, 대량판매, 매스마케팅 등에 변화를 주었다. 대면적 상거래를 중시하던 사회에서 비대면적 상거래가 가능했던 이유는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소통수단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IoT, AV, RV,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소비자와의 접점인 상호 소비성향의 성장을 가지고 왔다. 이러한 기술이 기업과 소비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1대1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시니어 창업자들도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 창업에 도전해야 한다.

인터넷 환경은 소비자들의 소비 기호도가 바뀌었기에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은 많은 정보를 비대면적 환경에서 인터넷 도구를 활용해 취한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카페, 카스토리, 쿠팡, 마켓컬리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정보취득과 공유, 구매, 교환 등 상호 작용에 충실하고 있다.

또한, 고객 위상이 달라지게 했다. 소비자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입장이고, 기업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안티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하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다. 심지어 판매자에게 역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만큼 소비자의 입김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의해 준거집단화 되어가고 있다.

거래 장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시켰으며 더 나아가 기업이 고객을 직접 생산 단계에 참여시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유통공간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끊임없이 생존위기로 몰아가며, 그동안 유통마진을 수익으로 삼았던 기업들에게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 환경은 기업의 목표를 시장 점유율에서 고객 점유율로 바뀌 놓았다. 기업에게는 신규 고객을 찾아 해매기보다는 기존 고객을 활용하는 방안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기존 고객은 제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므로 기업 차원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입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 이들을 활용할 수도 있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순위와 시장 점유율 보다는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목표 고객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소량생산 소량판매 시대, 제품선택의 기준은 자신에게 맞도록 개인화 된 것이다. 인터넷 창업자가 되면 고객이 과거에 무엇을 구매했고, 어떠한 구매형태를 보였으며, 구매 후의 반응 등은 어떠한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창업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인터넷 창업에서 매출의 유입 통로는 검색엔진,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들어온 고객들이다. 고객이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심 설득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쇼핑물의 메인 페이지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기서 최초 7초 이내에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메인 페이지에 고객을 머물도록 하면, 고객은 상품상세설명 페이지를 통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후 고객게시판, 이용 후기 게시판, 기타 다양한 설득요소에 의해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겨나는 인터넷쇼핑몰 사이에서 저가 위주의

판매 전략은 더 이상 차별화 요인이 되지 못한다.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차별화를 실시하고 있다. 빠른 배송, 후불제, 독특한 스타일, 브랜드, 우수한 제품 디자인, 콘텐츠제공, 적립금 제공 등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른 쇼핑몰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정 상품을 단독 판매하거나, 중고나 반품 제품만을 싸게 선보이는 코너 등의 전략을 활용하면 좋다.

인터넷쇼핑몰이 경쟁사와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시장 세분화를 통한 포지셔닝 설정이 관건이다. 포지셔닝은 경쟁 쇼핑몰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경쟁 쇼핑몰이 하는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소위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그레아만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이 다른 쇼핑몰에 비해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향후 구매 상황에 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 창업은 가격, 제품 경쟁력, 디자인, 빠른 배송시스템 등 고객의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를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

/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현대차그룹 '인간 중심 모빌리티' 철학, 美 감동 선사

**뉴욕 페스티벌 광고 어워드서
감정인식 '리틀빅 이모션' 은상
로봇공학 '두번째 걸음마' 동상**



뉴욕 페스티벌에서 동상을 수상한 '두 번째 걸음마' 영상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간중심의 모빌리티 철학과 기술력을 담은 캠페인으로 미국 시장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현대차그룹은 세계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미국 뉴욕 페스티벌 광고 어워드에서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현대차그룹이 은상을 받

컨트롤 기술이 적용된 키즈 모빌리티가 어린이 치료 과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 영상이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현대차그룹 신기술 캠페인 '리틀빅 이모션' 영상은 입원 중인 어린이 환자들이 병실에서 진료실까지 짧은 이동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긴 여정으로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감정 인식 차량으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실제 치료 과정에 활용되는 모습을 담았다.

동상을 받은 '두 번째 걸음마'는 웨어러블 로보틱스(착용형 로봇공학) 기술을 이용해 하반신 장애를 가진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박준범 선수에게 새로운 걸음을 선사하는 캠페인 영상이다.

지난해 1월 공개된 현대차 브랜드 캠페인 '두 번째 걸음마' 영상은 웨어러블 로보틱스 기술이 적용된 의료용 로봇 'H-MEX'와 함께 새로운 걸음을 내디딘 박준범 선수가 새롭게 도전하는 순간을 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큐셀, 허리케인 피해 콜롬비아에 태양광 모듈 기부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보폭 넓혀 교육시설 전력 인프라 복구 지원

한화큐셀이 허리케인 피해로 전력망이 파괴된 콜롬비아 라과히라 지역에 태양광 모듈을 기부하며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화큐셀은 허리케인 피해로 전력망이 파괴된 콜롬비아 라과히라 지역에 총 310kW규모 태양광 모듈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태양광 모듈은 오는 8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항에 도착해 콜롬비아 광물에너지

지부 산하 전력관리원(IPSE)을 통해 약 56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 시설의 전력 인프라 복구에 활용된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11월 중남미에 발생한 허리케인 '에타'와 '요타'로 전력, 통신, 수도 인프라가 손상됐다.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에 따르면 한화큐셀이 태양광 모듈을 기부하는 라과히라 주는 1만4470가구, 6만8883명이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었다.

한화그룹은 국내에서도 전국 사회복지시설 등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상 설치해주는 '해피선샤인' 캠페인에도 협력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인사

- ◆국토안전관리원 ◇실장급 전보 △미래 혁신실장 박성우 △재난안전관리실장 박시현 △안전보건관리실장 김진희 △공공기관안전평가실장 김범준 △인재노무실장 문동현 △디지털혁신추진단장 김민수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장 지명호 △특수시설관리실장 홍성수 △시설안전관리단장 유덕용 △교량실장 이덕근 △터널실장 노은철 △인재교육센터 학사관리실장 류정
- ◆국기철도공단 ◇감사 임명 △감사 유인재
- ◆금융결제원 △상무이사 차병주 △상무

- 정대성
- ◆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기반전략사업총합군수지원팀장 이희수
- ◆마케팅팀 △스포츠산업부 국장 이석희
- ◆통계청 ◇책임운영기관장 △호남지방통계청장 김대호
- ◆주택금융공사 △감사 김준일

부음

- ▲전재유씨 별세, 전윤현(사업)·영현(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준현(전경련 자문위원)씨 부친상, 허경원(위드성형외과 원장)씨 시부상 = 1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1일. 02-3410-3151